

제5장

예니날예니날 예저기에...
스르 스르 예저기에...





1. 고봉산과 심학산의 싸움

세상의 모든 산이며 나무들이 처음 생겨나던 시절.

하늘에서는 두 개의 큰 산이 서로 먼저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 힘을 겨루고 있었다. 하나는 고봉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심학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었다.

이 두 산이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서로 좋은 자리를 살피던 중 덩치가 조금 큰 고봉산이 심학산을 툭 밀어내고 자리 좋기로 소문난 지금의 고양시, 즉 벽제와 일산 사이에 먼저 내려와 자리를 잡았다.

곧 뒤따라 내려온 심학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봉산 쪽에다 큰 소리로 방귀를 똥 후 고봉산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가 떨어진 파주시 교하 땅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 생겨날 때부터 자리다툼을 하느라 서로 원수가 되어 버린 고봉산과 심학산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고봉산과 심학산 사이에는 아무 산도 자리하고 있지 않아서 둘은 눈만 뜨면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었다.

기지개를 켜며 고봉산이 먼저 말했다.

“야, 심통 난 심학산아! 그쪽은 한강이 가까워서 무척 춥지? 바람이 많으니까 너희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자주 바람이 난다더라. 약 오르지?”

화가 난 심학산은, ‘어디 두고 보자. 고집 센 심술쟁이 고봉산아,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하고 고봉산을 벌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양 쪽에 살고



있는 북한산의 백운봉이 오랜만에 고봉산에게 놀러 오게 되었다. 백운봉은 설악산에게 놀러 갔을 때 선물로 받은 더덕술을 가지고 와서 고봉산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앞으로 고봉산과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심학산 욕을 실컷 하며 밤늦도록 술을 마신 고봉산은 몹시 갈증이 나서 길게 목을 내뻐어 한강 물을 정신 없이 들이켰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심학산 아래 마을에는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심학산 꼭대기로 짐이며 가축을 옮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새벽녘부터 시작된 이 이상하고 냄새 고약한 홍수는 고봉산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숯고개(탄현)를 지나 덕이마을과 가좌마을 그리고 구산마을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한편, 해가 중천에 이르러서야 잠에서 깨어난 고봉산은 비로소 자기가 오줌을 찼다는 사실을 알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심학산 쪽을 바라보았다. 심학산 아래 마을에서는 홍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가느라고 난리법석이었다.

이때 갑자기 '쿠궁' 하고 큰 바위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왔고, 이어서 고봉산의 머리 위로 무수한 바위돌들이 날아들었다. 자기 마을을 온통 오줌바다로 만들어 버린 데 화가 난 심학산이 고향을 지르며 고봉산 쪽으로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봉산은 머리가 터지고 코피가 흐르는 등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고봉산은 자기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파도 그저 꺾 참으며 심학산의 돌팔매질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개성의 송악산이 생각하기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고봉산이 바위돌에 맞아죽고 말겠구나' 하고 '쯔쯔' 혀를 차며 한 가지 궁리를 해



냈다.

자신의 딸인 정발산과 오두산을 각각 고봉산과 심학산에게 시집을 보내 가정을 꾸리도록 하면 둘의 사이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착한 정발산은 고봉산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고, 마음이 넓은 오두산은 심학산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다.

고봉산은 색시로 맞아들인 정발산의 자상함에 이끌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다. 심학산 역시 금세 오두산에게 정신을 빼앗겨 고봉산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고봉산과 심학산은 싸움을 하지 않고 가정에만 충실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정발산과 오두산이 임신을 하자 고봉산과 심학산은 약속을 하였다. “우리가 언제 또다시 서로 싸움을 벌일지 모르니 자손들을 우리 두 산 사이에 살게 하자.”

그렇게 해서 고봉산 밑에는 고(高)씨들이 자리를 잡았고, 심학산 밑에는 심(沈)씨들이 살게 되었다. 그후 고봉산과 심학산은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의좋게 살아갔다.



2. 흰돌마을(백석동)의 시작

고양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처음 마을이 생길 때의 일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사람들이 흩어져 마을을 이룬 곳이 서른 여덟 군데였다. 그러나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마을 이름조차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의 마을 이름을 하나둘씩 짓기 시작하였다. 그 이름들 중에는 싸리나무골, 절골, 달갈뿌리 등이 있었으며 제각기 마을의 특성이 담긴 좋은 이름들을 지어 서로 뽐내며 자기 마을 자랑을 했다.

그리고 서른 여덟 마을의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 식사동에 있는 견달산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는데, 모임 때면 모두들 자기 마을의 자랑과 마을 이름을 뽐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나 서른 여덟 마을 중에서 단 한 군데, 한강 옆 용채이별관 뒷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3년이 되도록 마을 이름을 짓지 못해 이웃 마을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었다. 그런 탓에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 놀러 가는 것은 물론 바깥출입조차 금하고 동네의 큰 느티나무 밑에 모여 마을 이름을 짓기 위해 매일 회의를 열곤 했다.

견달산에서 기우제를 마친 어느 해 여름, 한번 내리기 시작한 장마는 그칠 줄을 모르고 한 달 내내 장대 같은 비를 쏟아 붓고 있었다. 가뭄은 이제 해소되었건만 비는 여전히 내렸다. 계곡마다 물이 넘쳐흘렀고 이윽고 한강 물까지 넘쳐 이 마을로 차 오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견달산으로 올라가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한강 물은 자꾸자꾸 불어나 집채 같은 물이 상류로부터 쏟아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강물 위에 어떤 이상한 물체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떠내려 오는 것이 보였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빛은 더욱 밝아졌고, 마을사람들은 모두 그 신기한 물체에 이끌려 물가로 몰려들었다. 그 이상한 물체는 용채이별관의 뒷마을 강가로 밀려 나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그 반짝거리는 물체는 다름 아닌 배 위에 실린 하얀 돌이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별거벗은 아기가 올라앉아 조용히 웃고 있는 것이었다. 하얀 돌은 이상한 빛 때문에 매우 신비하게 보였다.

잠시 후, 그 하얀 돌과 아기는 물결을 따라 용채이별관을 몇 바퀴 돌더니 마을 옆 도당산 끝에 걸려 멈추었다. 그 순간, 한 달 내내 억수같이 쏟아지던 큰 비가 그치고 그토록 많던 물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괴이한 광경에 신기해하면서 이것은 분명 하늘의 신령님이 보내 주신 좋은일이라면서 흰돌과 아기를 마을 부근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기의 울음이었다. 마을 아낙네들은 돌아가면서 아기에게 젖을 먹여 주고는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기는 흰돌로부터 불과 3~4미터만 떨어지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낙네들은 아기에게 옷을 입히고 달래 보기도 했으나 모두 헛수고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게 된 아낙네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면 반드시 흰돌에 모여 젖을 먹이고는 했다.

이 흰돌과 아기가 뜻하지 않게 마을로 들어온 후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박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신비스런 흰돌과 아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신령한 것이 분명하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서 마을 이름이 없으니 저 흰돌의 모습을 따서 마을 이름을 백석(白石)이라 짓고 돌과 아기를 돌보아 준다면 필시 우리 마을에 기쁜 일이 생길 듯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여기저기서 “좋습니다” 하는 말이 터져 나와 마을 사람들은 박 영감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집집마다 돌아가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흰돌에게는 제사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 덕분에 아기는 마을 아낙네들의 젖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기가 자라면서 마을의 나쁜 일들도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한강에 고기잡이를 나갔다 배가 뒤집혀 사람이 죽는 일도 없어졌고, 괴질로 고통을 받거나 죽어 가는 사람도 깨끗이 사라졌다. 또 교통이 불편해 장사도 안되던 백석 마을에 새로이 뱃길이 뚫리고 육로가 생겨 많은 장사꾼들이 드나들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가난에 허덕이던 백석마을은 차츰 부자 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한양과 강화·파주는 물론 멀리 개성에서까지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이윽고 흰돌장이라는 큰 재래장이 서기에 이르렀다.



한편, 다른 마을에서는 이렇게 낱이 번창해 가는 백석마을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인근 홍구대마을에 사는 욕심 많고 심통 많기로 이름난 민머리 최 영감의 시기심은 누구보다도 더 했다. 시기심 때문에 밤에는 배가 아파 잠이 오지를 앓았고 드디어는 화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백석마을이 부자 마을로 변했는지 알아보기나 해야겠군.”

궁리 끝에 이런 생각을 떠올린 민머리 최 영감은 자신의 둘째 아들을 백석마을로 보내 그 까닭을 알아보도록 했다. 백석마을을 다녀온 최 영감의 둘째 아들은 백석마을이 신기하게 변한 모습을 본 대로 전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흰돌 이야기와 아기, 그리고 수많은 장사꾼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했다.

다음날 최 영감은 아침 일찍 둘째 아들을 앞세우고 흰돌과 아기가 있다는 백석마을의 도당산으로 향했다. 과연 그 곳에는 눈이 부시도록 하얀 흰돌 하나와 천진하게 웃고 있는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음, 돌과 아기가 여간 범상한 게 아니군.”

이렇게 혼자서 중얼대던 최 영감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돌아오는 길에 백석마을의 흰돌 장터에 들린 최 영감은 인근에서 모여든 장사꾼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또다시 배가 아파 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영감은 어떻게 하면 저 흰돌과 아기를 없앨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밤에는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었고 낮에는 화병 때문에 하루 종일 찬물만 들이켰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영감은 백석마을의 흰돌과 아기를 없애 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벽같이 도끼와 자루 하나를 가지고 백석마을 사람들 몰래 흰돌과 아기가 있는 도당산으로 올라갔다.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순간 최 영감은 가지고 간 도끼로 흰돌을 내리쳤다. 그러자 흰돌이 쪼개지면서 피가 흘렀다. 그때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트리려는 아기를 최 영감이 얼른 자루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멀리 한강 쪽으로 배를 태워 보내 버렸다.

그때였다. 쪼개진 흰돌에서 흰 학이 나오더니 피를 흘리며 하늘로 날아갔다.

천둥·번개소리에 놀란 백석마을 사람들이 허둥지둥 도당산 위로 올라가 보니 흰돌은 부서져 있고 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벼락을 맞아 검게 탄 최 영감이 죽어 있었다.

그 일이 있던 후, 백석마을에는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고기잡이를 나갔던 마을 사람들이 빈번하게 죽었고, 괴질이 나돌았다. 그리고 그토록 번창하던 장터는 서서히 시들해져 가더니 결국 일산으로 옮겨져 장사꾼들은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이제 백석마을은 예전처럼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흰돌과 아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한다.



3. 오줌고개와 똥골짜

경기도 고양의 송포 땅과 파주 교하 땅의 경계에 나지막한 고개가 하나 있었다. 고양 땅 쪽으로는 임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고 파주 쪽으로는 송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 두 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한 곳에서 함께 살다보니 자주 다투게 되어 사이가 썩 좋지를 았았다.

논에서 농사일을 하다가도 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장에 나갔다가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자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니 새로 시집온 아녀자들도 덩달아 예전에는 친구·친척간으로 다정한 사이였지만 이제는 우물가에 모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상대방을 홍보거나 욕을 하고는 했다.

그런 임씨네와 송씨네였지만 일 년에 한 번, 즉 음력 10월 1일부터 보름 동안은 절대 싸움을 하지 았았다. 바로 이 두 마을 사이의 고개 위에서 성황당과 산신에

게 굿이나 제를 올리는 기간에는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이 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여 싸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백년 전이었다.

어느 날 송씨 집안의 큰 어른인 송 영감이 이 성황고개를 넘다가 똥이 너무 마려워 신령하신 나무 아래 골짜기에서 남몰래 불일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본래 이 곳은 마을의 제를 올리는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고개를 넘을 때는 근처에서 용변은커녕 소리내는 것조차 삼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곳에서 용변을 보고 말았으니...

때마침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심씨 마을의 수다쟁이 축새어미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모르는 송 영감은 용변을 본 후 보이지 않게 흙으로 잘 덮어놓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다음 날, 임씨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송 영감의 똥누는



모습이 어떠하며, 엉덩이의 큰 점이 어떻고, 그 냄새가 어떻고….

물론 축새어미로부터 시작된 이 소문은 이웃 송씨네 집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송 영감은 마을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 식욕까지 잃을 정도가 되었고, 그의 가족 역시 창피해서 바깥출입은 물론 불안한 마음에 변비에 걸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후 심씨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된 온 마을사람들이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여 모두 변비에 걸리게 된 것이다.

한편 임씨 마을에선, 송 영감의 똥 이야기로 한창 재미있던 중에 심 부자의 외동아들인 칠삭둥이가 아이들과 함께 서당에 가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신령스러운 고개 위에서 오줌을 누게 되었다. 그런데 송씨 마을에서처럼 이번에는 심 부자집 칠삭둥이의 고추가 퉁퉁 부어 별경게 되더니 사흘 뒤에는 온 동네의 남자들이 칠삭둥이처럼 고추가 퉁퉁 부어 버리는 커다란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송씨 마을 사람들은 똥을 못 누어 얼굴이 누렇게 뜨고 항상 아랫배를 어루만지며 안절부절못하고, 임씨 마을 사람들은 고추가 부어 똑바로 걷지 못하고 계걸음으로 걷는 우스운 광경이 이곳 두 마을에서 벌어졌다.

고추가 부은 임씨 마을 사람들은 이런 고역이 송씨 마을 사람들 때문이라며 열을 올렸고, 똥을 못 누는 송씨 마을 사람들은 똥을 못 누는 게 임씨 마을 사람들 때문이라며 샷대질을 해댔다. 이런 일이 있던 후 지금까지 3백 년 동안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왔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있던 지 305년이 되는 날의 일이었다. 심 부자의 15대 자손과 송 진사의 15대 자손이 그날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것이었다.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두 마을의 불화의 원인이 성황당 고개와 그 골짜기였으니, 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차례로 소변과 대변을 보면 용변을 보지 못하는 병은 물론이요, 두 마을 사람들과의 사이도 좋아질 것이니라.”

이 꿈을 꾸은 임 부자와 송 진사의 15대 자손은 이 이야기를 마을사람들 모두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두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고개에 올라 꿈 속의 노인이 말해준 대로 임씨 마을 사람들은 오줌을 누고, 송씨 마을 사람들은 똥을

누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오줌과 똥을 누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이었다. 오줌누기와 똥누기가 끝난 후 양쪽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성황제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그 일이 있던 후, 양쪽 마을 사람들은 3백년 동안 이어온 병이 거짓말같이 씻은 듯이 낮게 되었다. 거름이 모자라 농사가 잘 안되던 송씨 마을은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 임씨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게걸음으로 걷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 편히 잠드시라고 절을 올리는 등 양쪽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잔치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후 두 마을 사람들은 이 골짜기와 고개를 똥골짜, 오줌고개라 불렀으며 다른 어떤 마을 사람들보다 더 협력하여 사이 좋게 살았다. 그리고 다시는 이 부근에서 오줌과 똥을 누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늘 가르쳤다고 한다.



4. 고려 공양왕과 점박이 삼살개

500년 역사의 고려가 망하고 새로이 조선이 들어설 때였다. 나라를 잃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당시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떠나 임진나루를 건너 고양 땅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숨어 다니던 동안에도 비운의 공양왕은 언제나 왕비와 함께 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점박이 삼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다. 이 삼살개는 몸집이 크고 사람의 말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충명하여 공양왕으로부터 무척이나 아낌을 받았다.

공양왕이 왕비와 함께 고양 땅으로 피신을 온 것은 최영 장군 때문이었다. 최영 장군은 죽기 전까지 왕에게 충직했을 뿐 아니라 나라를 보살피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그런 최영 장군이 죽은 후 묻힌 곳이 바로 이곳 고양 땅이었다. 개성에서 고양까지 오면서 왕과 왕비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한 번은 공양왕의 일행이 고봉산 아래 두테비란 마을에 도달했을 때였다. 길을 가던 공양왕의 일행 앞에 구렁이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일행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이때 총명하고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삽살개가 구렁이를 물어 죽여 왕 일행은 다시 길을 갈 수가 있었다.

또 문봉동에서는 왕비가 독벌레에게 물려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이번에도 역시 삽살개가 상처를 혀로 핥아 내는 바람에 왕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왕비의 상처가 치료되자 공양왕 일행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여전히 뒤쪽에서 군사들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행은 견달산을 지나 어침이 마을 너머 대궐 고개에 숨어 들었다. 날이 저물자 허기와 추위가 닥쳐왔고 왕비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때 점박이 삽살개가 마을 어귀에 절에 가서 밥과 옷을 구해 왕과 왕비에게 갖다 주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왕비를 위해 밤새껏 두 사람을 지키며 날을 밝혔다.





다음날 다시 공양왕은 일행을 이끌고 대궐 고개를 넘어 원당동 왕릉골 방향으로 피신을 했다. 멀리 고봉산 아래에는 수백 명의 군사들이 뾰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들의 뒤를 추격해오고 있었다. 왕릉골 쪽으로 계속 피신을 하던 일행의 앞쪽 사리재(지금의 사리현동)에서도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고 있었다.

군사들의 추격에 앞뒤가 꼭 막혀 오갈 수 없게 되어 버린 공양왕은 더 이상 피신하는 것을 포기하고 왕릉골 골짜기에 숨어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격군들의 말발굽 소리는 더욱 가까이 들려 왔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다섯 명의 선봉군이 지척에 와 있는 것이 보였다. 사태가 몹시 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점박이 삼살개는 공양왕과 왕비에게 나뭇잎을 물어다 주어 몸을 숨기게 하였다. 그리고 추격병들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갑자기 달려들어 그들을 공격하였다.

나뭇잎 더미 속에 숨어 있던 왕과 왕비는 점박이의 울부짖는 소리와 병사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처절한 싸움이였다.

그러는 사이 공양왕과 왕비는 왕릉골 골짜기 어느 푸른 연못가에 이르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만 것이였다.

“왕비,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소.”

이렇게 말을 마친 공양왕은 한동안 연못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공양왕과 왕비는 신발을 나란히 벗어 놓고 그 푸른 연못 속으로 몸을 던졌다.

추격병 다섯을 모두 물리친 점박이 삼살개의 몸은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다. 다섯 명을 모두 물리치기는 했지만, 몸뚱이의 여기저기를 칼과 창에 찔린 점박이 삼살개도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다. 죽어 가는 몸을 이끌고 공양왕과 왕비가 있던 자리까지 돌아왔으나 두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다시 있는 힘을 다해 왕과 왕비를 찾아 헤매다 연못가에 다다른 점박이 삼살개는 그 곳에서 두 사람의

신발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공양왕과 왕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점박이 삼살개는 비탄에 잠겨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몇 번을 더 그렇게 울부짖던 점박이 삼살개는 왕과 왕비가 뛰어들었던 그 푸른 연못 속으로 몸을 던져 두 사람의 시신을 건져내고는 서서히 숨을 거두었다.

잠시 후 문봉동과 사리재 쪽에서 추격해 오던 병사들이 도착하여 이 광경을 보고서 모두들 충성 어린 개의 행동에 감탄을 했다. 그리고 병사들은 왕릉골에 왕과 왕비의 능을 만들어 주고 그 옆에 점박이 삼살개의 무덤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왕릉 앞에는 점박이의 삼살개 모습을 한 석상을 만들어 그 용맹성과 충직성을 기렸다.



5. 용구재 이무기의 한

논농사로 유명한 한강변 대화동 백암마을에는 부근 마을에도 널리 알려진 큰 웅덩이 하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통 이 웅덩이를 백암(白岩)웅덩이라고 불렀다. 이 웅덩이가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은 웅덩이 옆에 크고 흰 바위가 있다고 해서 생긴 것이었다.

백암웅덩이에는 오래 전부터 이상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수백 년 묵은 괴물 두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도 그 괴물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다만 어른들은 마을 아이들에게 그 웅덩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를 뿐이었다.

그런데 이 대화동 마을에는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일을 도맡아 하고 다니는 철구라는 아이가 있었다. 어른들이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르고 마는 말썽꾸러기였다.

한편 대화동 마을의 백암웅덩이에 살고 있는 괴물은 다름 아닌 이무기였다. 웅

덩이 속 30미터의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이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천 년을 사흘 앞둔 두 마리의 이무기였다. 한 마리는 숫놈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암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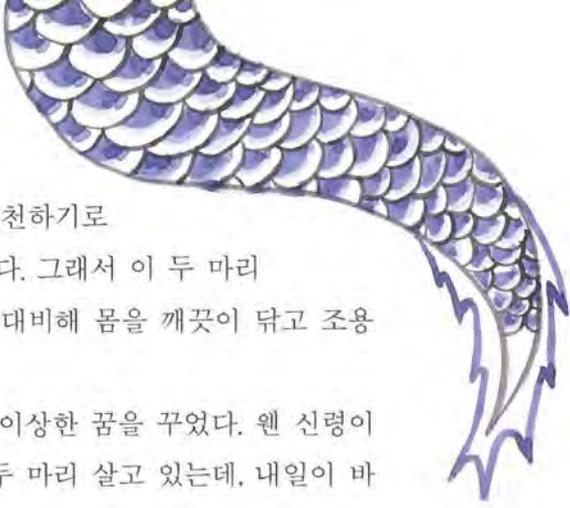
이 중 숫놈 이무기는 천성이 착하고 항상 조심스러워서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데 늘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암놈 이무기는 성격이 급한 데다가 호기심이 많아 웅덩이 속에서 항상 말썽을 피우기 일쑤였다.

웅덩이 부근에 사람이 나타나면 암놈 이무기는 머리를 내밀고 몰래 물을 뿌려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짙은 안개가 낀 날이거나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웅덩이에서 기어올라와 부근에 있는 밭을 모두 망쳐 놓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 날이면 사람들은 밭의 옥수수에서 이상한 이빨 자국을 발견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용케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들킨 적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이무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백암웅덩이에 사는 두 마리의 이무기는 원래 조그마한 지렁이에 불과했었다. 그때가 바로 천 년 전이었다. 이 두 마리의 이무기는 비 오는 어느 날 임신한 여자의 오줌을 온 몸에 뒤집어쓰고는 도룡뇽이 되려다가 그만 미꾸라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후 다시 2백년이 지나자 뱀장어가 되었고, 2백년 뒤에는 물뱀이, 3백년이 지난 뒤에는 큰 구렁이가 되었다가 다시 2백년이 지난 90년 전에 이르러서는 지금과 같은 이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어찌다가 이무기가 되어 버린 이 두 마리는 지금까지 이 백암웅덩이의 흙탕물 속에서 숨어 지내며 용이 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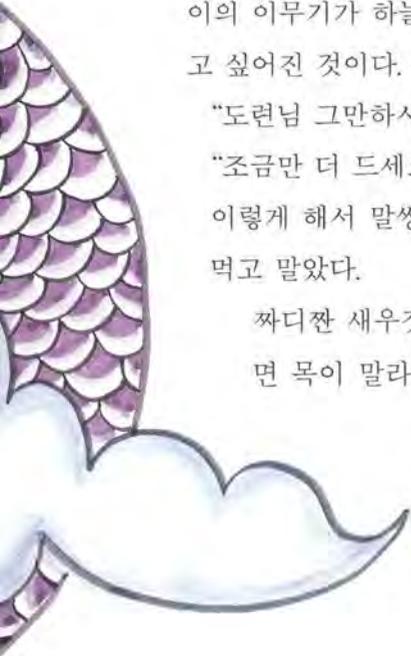
그리고 드디어 이무기들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기로 되어 있는 천 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이무기는 사흘 전부터 바깥출입을 삼가며 승천에 대비해 몸을 깨끗이 닦고 조용하게 보내고 있었다.

한편, 대화동 마을의 촌로인 김 노인은 이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웬 신령이 나타나더니 백암웅덩이에 용이 되려는 이무기가 두 마리 살고 있는데, 내일이 바로 이무기가 승천하는 날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 꿈을 꾸 뒤, 김 노인은 급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꿈속에서 신령이 들려준 말을 모두에게 말하고 주의를 주었다.

“내일 백암웅덩이에 살고 있는 이무기 두 마리가 용이 되기 위해 하늘로 오르는 승천을 하니, 모든 마을 사람들은 절대 바깥출입을 금하고 조용히 집 안에 있도록 하시오.”

김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근엄하게 말했다. 특히 이무기는 임신한 여인을 제일 무서워하니 특별히 조심하라고 일렀다. 이 일이 있는 후 마을에는 긴장감과 공포감이 감돌았다.



이런 와중에도 백암마을의 말썽꾸러기 철구는 장난을 치고 싶어진 것이다. 웅덩이의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심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한 번 큰 장난을 치고 싶어진 것이다. 철구는 먼저 임신한 형수에게 짠 새우젓을 잔뜩 먹게 했다.

“도련님 그만하시지요.”

“조금만 더 드세요, 형수님.”

이렇게 해서 말썽꾸러기 철구의 등쌀에 형수는 그만 세 되나 되는 새우젓을 다 먹고 말았다.

짜디짠 새우젓을 너무 많이 먹은 형수는 밤새 물만 들이켰다. 잠이 들만 하면 목이 말라 부엌으로 달려갔고, 또 잠이 들만 하면 오줌이 마려워 뒷간에 가느라 온 몸의 힘이 모두 빠져 달아날 지경이었다.

한편 백암웅덩이의 이무기들은 자정이 다가오자 용이 되기 위해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늘 문을 지나야 하므로 이제 이 두 마리의 이무기는 서서히 웅덩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웅덩이에서 머리를 드러낸 이무기들은 주위를 한번 살핀 후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몸이 작고 가벼운 솟놈이 앞장을 섰고 암놈이 그 뒤를 따랐다. 두

마리의 이무기는 흑시 마을에 임신한 여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어찌나 하는 걱정으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랐다. 하늘로 높이 오를수록 이무기는 꼬리부터 용의 모습으로 변해 갔다. 머리 부분의 아래까지 용의 비늘로 덮였으며 발이 생겨났고, 몸뚱이의 반쯤은 이미 구름을 뚫고 있었다.

잠시 후면 그 더러운 백암웅덩이에서 천 년을 보내야 했던 이무기들이 이제 곧 완전한 용이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순간인가? 이제 머리의 나머지 부분만 용으로 변하면 정말 하늘로 승천하는 완전한 용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선행을 한 솟이무기는 암이무기보다 앞장서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아래 대화동 마을을 얼핏 내려다보던 이 두 마리의 이무기는 웬 임신한 여자가 지붕이 없는 뒷간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새우젓을 먹고 물을 들이킨 철구의 형수가 열네 번째 오줌을 누기 위해 뒷간에서 불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못 볼 것을 보고 놀란 이무기들은 있는 힘을 다해 하늘로 오르는 속도를 더욱 빨리 했다. 솟이무기가 하늘 문을 막 통과한 뒤 완전한 용이 되었고 그 뒤에 암이무기가 막 이 문을 지나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로 통하는 문이 '철거덕' 하고 닫히더니 온 세상이 노랑게 물드는 것이었다.

순간 하늘로 오르던 암이무기의 몸을 덮고 있던 용의 비늘이 모두 떨어져 버려 암이무기는 다시 이무기가 돼 버렸고 온 몸의 힘이 빠진 듯 철퍼덕 하고, 백암웅

덩이 속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했다.

천 년 동안 기다려 왔던 시간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만 것이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난 암이무기는 그날부터 웅덩이 밖으로 나와 마을의 논과 밭을 모두 망쳐 버리거나 닥치는 대로 집들을 부수어 버렸고, 눈에 띄는 사람들마다 큰 상처를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암이무기의 횡포가 며칠간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 바깥으로 나오지조차 못했다.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암이무기에게 용서를 비는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정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었다.

용이 되려다 실패한 암이무기에게 마을 전 재산을 털다시피 해서 제사를 지낸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그러자 암이무기도 그 정성이 가륙해 화를 풀고 웅덩이 속에서 나오지 않고 더 이상 횡포도 부리지 않았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동짓달 초하루가 되면 이 암이무기는 다시 화가 나 웅덩이에서 나와 횡포를 부리고는 하였다. 이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용구재라는 고개에 올라 철구의 잘못에 대해 이무기에게 용서를 빌고 큰 제사를 지냈다. 철구는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매번 용구재 이무기 제사에 참여했고 한참 뒤에는 마을의 촌장이 되었다고 한다.



6. 효자 태성이와 인왕산 호랑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고양 땅과 한양 땅 사이에 있는 박석고개를 초라한 상여 하나가 너울너울 넘고 있었다. 상여 뒤에는 상제로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베옷과 두건을 쓰고 울며 뒤따르고 있었다.

상여는 구슬픈 만가소리에 맞추어 흔들흔들 앞으로 나아갔다. 상제라고는 어린

아이 하나뿐이었고 상여의 행렬은 너무도 쓸쓸하게만 보였다. 유독 서럽디 서러운 어린 상제의 곡소리만이 상여 근처를 맴돌 뿐이었다. 그 아이의 곡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든지 상여를 맨 상여꾼들도 모두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다.

그렇게 박석고개를 넘은 상여는 어느덧 구파발을 지나 북한산 기슭에 이르렀고 장사를 다 지낸 상여꾼과 어린 상제는 저녁때가 다되어서야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 어린 상제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태성이었다. 올해 아홉 살밖에 안된 태성은 홀로 저승으로 가는 아버지가 안타까워 그토록 서럽게 울어댔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태성의 효성은 마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지극했었다. 그런 태성이었으니 아버지를 장사지내는 어린 자식의 마음이야 오죽하였을까.

아버지를 장사지낸 그 다음날부터 어린 태성은 매일같이 새벽이면 무악재고개와 박석고개를 넘어 고양 땅에 있는 북한산 밑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문안 인사를 올리고 되돌아왔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에 새벽마다 문안 인사를 올리는 태성의 효성은 일 년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이어졌다. 아무리 농사일에 바빠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문안 인사를 올리곤 했다. 추운 겨울이 되어서도 태성의 새벽 문안 인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은 그날도 아버지의 산소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모화관(지금의 독립문)을 나서 험하기로 이름난 무악재를 험들게 넘고 있었다.



이때 인왕산 쪽에서 얼룩무늬의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닌가, 놀란 태성이는 너무 무서워 도망치지도 못하고 뒷걸음을 치면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벌벌 떨고 있는 태성에게 고개를 흔들며 안심하라는 시늉을 해 보이고는 자기 등에 올라타도록 했다. 이 인왕산 호랑이는 오래 전부터 무악재를 넘나드는 태성이를 쭈욱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지낸 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산소에 문안 인사를 다니는 태성이의 효성에 크게 감명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태성이는 호랑이의 태도가 워낙 부드럽고 눈에 살기가 없으며 울음소리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 다정스럽게 느껴져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인왕산 호랑이는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녹번리와 불광사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박석고개를 지나 북한산 기슭에 다다르는 동안 마주친 모든 동물들이 머리를 숙이며 길을 터주는 것이었다. 태성이를 태운 호랑이가 아버지의 산소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눈 깜짝할 사이였다.

아버지의 산소에 다다른 태성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고, 호랑이는 태성이의 문안 인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등에 태성이를 태운 후 오던 길을 달렸다. 박석고개를 지나고 녹번리를 지나 다시 무악재에 이르자 호랑이는 태성이를 내려놓은 뒤 인왕산 쪽으로 유유히 사라져갔다.

이렇게 매일 이어진 호랑이와 태성이의 새벽 문안 인사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 40여 년이 흘렀다. 효자 소년이었던 태성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그때 장안을 휩쓸던 뭍쓸 병에 걸려 그도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 40여 년 전 아버지의 상여가 가던 그 길을 이제 태성이의 주검이 담긴 상여가 그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마침 봄이었고, 진달래가 만발한 박석고개 길을 넘어 상여는 천천히

고양 땅의 북한산 기슭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들이 울부짖으며 상여의 뒤를 따랐다. 태성이의 자식들도 서글프게 곡을 하며 저승길로 가는 아버지의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다.

태성이의 시신이 묻힌 무덤은 아버지의 산소 옆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후 늦게 장사를 마친 태성이의 자식들이 산을 내려오려고 할 때였다. 크고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크게 울부짖더니 호자 태성이의 산소 옆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는 것이었다. 늙은 호랑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애처롭든지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다.

바로 그 호랑이가 40여 년 동안 태성이를 등에 태우고 무악재에서 아버지의 산소까지 새벽길을 달리던 인왕산 큰 호랑이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태성이의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은 태성이의 산소 옆에 호랑이의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그후 태성이의 후손들은 이곳에 제를 올리러 올 때마다 호랑이의 무덤에도 똑같이 제사를 지내주었다.



7. 북한동의 노적봉과 밥할머니

이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에 고양 여성의 활동을 보여주는 전설 중의 하나이다. 왜국(일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 조선의 땅을 피로 물들인 지 8개월이 지난 조선 선조 26년 정월, 조선의 조정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이 요청에 따라 명나라는 이여송을 대장군으로 삼아 명군 4만 명을 조선땅에 보내왔다. 총병관 이여송은 조·명의 연합군을 총지휘하여 왜군에게 빼앗겼던 평양성을 되찾고 그 여세를 몰아 서울을 향해 진격하였다. 그러나 1593년 1월 27일 서울을 눈앞에 둔 고양시 벽제관 남쪽 숫돌 고개 전투에서 조선·명나라 연합군은 왜군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여송과 장수들의 일부는 겨우 목숨만 살아 남아





북한산 노적봉 밑에 모이게 되었다. 왜군이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여송은 “길은 이제 두 갈래뿐, 이대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적에게 투항하여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애걸하느냐.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낫겠는가?” 하고 말하면서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조선관군의 총사령관 격인 도원수 김명원은 “길은 또 있소. 하나는 적에게 총반격을 가해 이번 패전의 수치를 씻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혈로를 뚫고 적진을 돌파하여 흩어진 병력을

재정비하는 길이외다.”라고 말했다. “김원수의 말씀이 좋기는 하나 아다시피 아군은 이번의 패전으로 다수의 병력을 상실했고, 적군은 의기양양하여 날뛰면서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으니 혈로를 뚫기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 빠져 나갈 구멍조차 찾기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하고 이여송은 침통하게 대답했다.

이에 김명원도 원통하여 더 할 말이 없어 장막 밖으로 나왔다. 이때 가난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장군께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하고는 다가왔다. 이 할머니는 숯돌 고개 남쪽의 창릉 모퉁이에서 떡장사를 하는 할머니였다. 그리고 잠시 뒤 그 할머니가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소리를 듣고 난 김명원의 안색은 금새 밝아졌다. 그는 즉시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여송에게 노파의 말을 전했다. 그 할머니는 “하늘이 우리를 도우려고 보낸 여신인지도 모르오.” 이여송은 김명원의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휘하의 장졸들에게 명령했다. “이 근처의 마을에 내려가서 짚단이란 짚단은 있는 대로 다 모아 오도록 하라.” 그런데 이 일이 있는 뒤 얼마 후 노적봉 기슭을 휘돌아 창릉 모퉁이 마을 앞으로 흘러가는 덕수천 냇가에는 수많은 왜병들이 모여들어 술렁대고 있었다. “목이 타서 죽겠는데 마실 물이 있어야지.” “글세 말이야. 저 냇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지만 물이 저렇게 뿌여니...” 왜병들이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냇물은 어떤 까닭인지 회색으로 흐려 더러워져 있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함지박에 흰쌀을 수북히 담아 머리에 이고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조금 전에 아군 진영으로 김명원을 찾아갔던 그 지혜 많은 노파였다. 한 왜병이 불러 세워 물었다. “여보 할멈! 이 냇물이 왜 이렇게 흐리오?” 노파는 그 왜병이 바보스럽다는 듯이 툭 쏘아 붙였다. “아무리 남의 나라에 쳐들어왔기로 그것도 모르고 무슨 싸움을 한다는 거요? 저 산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데다 군량미가 남아서 처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오. 그 혼한 쌀을 씻어 군사들의 밥을 지으니 그 쌀 씻은 물이 당연히 이 냇물로 흘러들 게 아니요?” “저 산에 그렇게 군량미가 많소?” 왜병들은 겁먹은 눈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르다뿐이오. 정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저기를 똑똑히 보시오.” 할머니는 손을 들어 노적봉을 가리켰다. “저기 저 산봉우리처럼 보이는 것이 뭔지 아시오? 그게 바로 노적가리란 거요.” “노적가리가 뭐요?” 왜병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께 물어보았다. “아따, 무식한 왜나라 사람들은 할 수 없다니까. 우리나라에선 밖에 쌓아둔 곡식더미를 노적가리라 부른단 말이오.” 할머니는 왜병들을 핀잔하고 나서 “자 이걸 보시오.” 하고는 머리에 이고 있던 함지박을 왜병들 앞에 내밀어 보였다. “마침 내가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군사들이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옥같이 흰 쌀을 퍼주는구려.” 왜병들은 기가 막혔다. 할머니는 그들을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튿날 왜병들은 멀리 도망가 보이질 않게 되었다. “그 할머니의 계략이 들어맞았군. 아군이 병력과 군량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여 도망친 것임에 틀림없어.” 도원수 김명원은 미소를 지었다. 왜병들의 눈에 노적가리처럼 보인 것들은 노적봉에 둘러쳐진 짚단들이었다. 그리고 냇물이 흐려진 것은 회를 탄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이었다. 이 모두가 할머니가 제안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아군은 즉시 혈로를 뚫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통일로 길가에는 머리없는 보살의 석상이 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밥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석상이 아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출한 슬기로운 할머니의 화신이라고 믿고 있다. 이외에 이 밥할머니는 고속 할머니, 밥보시 할머니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서로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로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